



The Philippines

MAY 5



YDCC 놀이터 디자인 03

필리핀이 북소리 07

Home stay 08

Work camp 13

중간 평가 28

개인 중간 평가 35



5월은 푸르구나. 매일같이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 이 놀라운 연속성과 지속성 사이에서도 우리는 5월의 푸름을 만끽한다. 이 믿을 수 없는 뜨거움 속에서도 5월은 나무의 가지를 굵게 하고 연꽃빛 잎들을 짙게 한다. 지천의 너른 풀들을 길게, 견하게 덧걸한다. 5월의 푸른 태양 아래서 우리도 이곳의 나무를 닮아간다. 더운 공기 바람을 견디고 머리칼을 태울 듯 내리 쏘는 날카로운 별을 참아내며 우리는 즐거운 자기 고민으로 우리를 더 길게, 푸르게 걸어나간다. 5월의 나뭇잎도, 별이 빛나는 그 밤도 참으로 푸르다.

YMCA Day care center play ground design (5월 4일 ~ 7일)

우리의 5월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원하는 5월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YMCA Day care center 놀이터를 디자인했다.

누에바 이시아 YMCA는 Valle Cruz 지역 내에서 무료 Day Care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YMCA 지역운동의 주요한 기반 사업으로 많은 아이들(Pre-school)이 이곳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서는 이 사업을 거점으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 간의 연대감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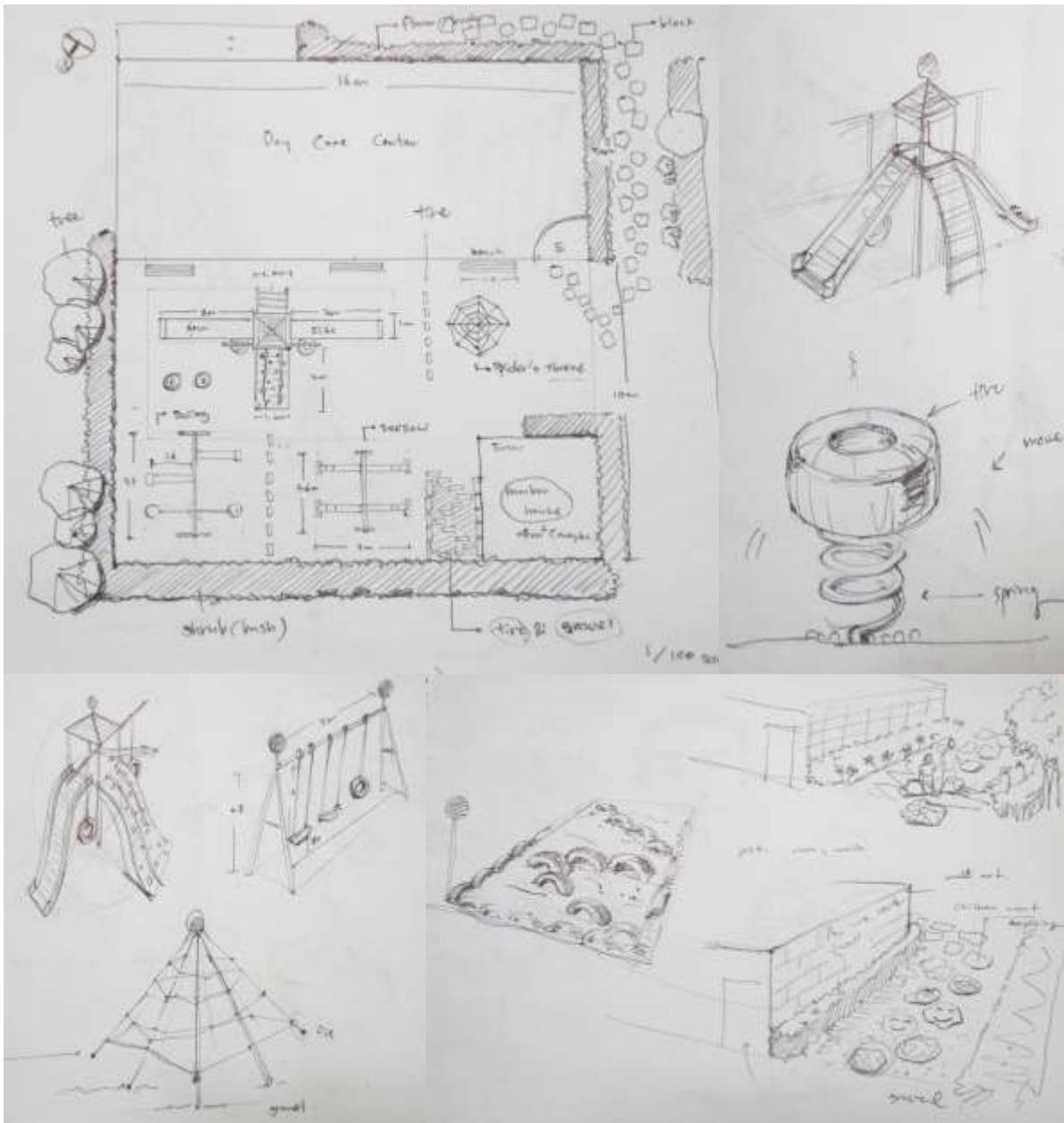
그 동안 Day Care center의 수업이 진행되던 장소는 YMCA 스텝인 아떼 Mayet의 집이었다. Valle Cruz에 살고 있는 아떼의 집을 이용하여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였던 것. 개인적인 공간을 업무의 목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불편함이 컸고, 수업을 진행하기에 협소한 공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YMCA는 새로운 Day care center를 건축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YMCA Day care center 신축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놀이터 설계와 건축 업무 돕기를 주요 업무로 할당 받았다. 기존의 Day care center는 아이들이 야외에서 활동적인 수업을 할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에 반해 새로 건설 중인 Day care center는 건물 앞 쪽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아이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원래 건물 앞 쪽의 부지는 지역 주민의 개인적 공간이었다. 우리는 이 부지를 지역 아동들을 위한 놀이터로 이용하고자 직접 어르신을 찾아 뵙고 양해를 구하였다. 어려운 설득의 과정을 거치리라 생각했는데, 어르신께서는 YMCA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그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Valle Cruz 지역 주민의 참여와 배려로 건물 앞 쪽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 주변 마을 사람들은 시끄럽고 복잡한 공사 환경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해주어 공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하며 업무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맡은 주요 업무인 놀이터 설계는 아이들이 원하는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 만큼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최대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적 놀

이기구를 설계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온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디자인을 전공한 Nina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Summer School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미끄럼틀과 그네를 가장 친숙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미끄럼틀과 그네를 포함한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놀이기구를 조합할 수 없을까 고민하였다. 우리는 고민 끝에 새로운 미끄럼틀을 고안해냈다. 며칠 간 자료를 조사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는 입체적인 구조물로서 미끄럼틀을 고안하였다. 사각형의 입체 구조물에 양 쪽으로는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다른 양 쪽으로는 아이들이 줄을 잡고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미니 암벽 등반 코스를 고안했다. 줄을 잡고 등반을 해 꼭대기까지 올라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형태인 것이다. 이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 옆으로 단단한 줄을 이용한 거미줄 놀이모형을 만들었다. 놀이터를 설계하면서 고려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놀이기구를 만드는 재료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으로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환경에 해가 덜 되면서도 주변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료로 놀이터를 구성한다면 지역 사회와 아동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미줄 놀이 역시 쉽게 구할 수 있는 로프를 이용한 것으로 아이들이 줄을 타고 올라가며 새로운 신체적 경험을 하기에 적합한 놀이기구였다. 그네와 시소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주변에서 쉽게 버려지는 폐타이어를 이용하였는데 그네의 의자부분을 타이어를 사용하였고 시소를 이용할 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소와 땅이 부딪히는 부분에 타이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는 타이어를 이용해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기구를 상상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동안 늘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밤부 하우스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YMCA가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놀이터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이 공간이 Day care center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마을 공동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랐다. 또한 새로 만들어진 놀이터를 보고 즐거워할 아이들의 모습을 빨리 보고픈 마음이다. 우리는 6월, Aurora 지역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향해 떠난다. 약 2주 간의 활동 후에 이곳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건축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새로운 5월의 공간의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다 주길 바란다.

필리핀의 목소리 (5월 10일 In Nieves)

5월 10일은 필리핀의 선거일이다. 필리핀에 도착하던 날부터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해왔다. 필리핀은 아직까지 선거와 관련된 폭력사태가 발발하고 부정적인 선거 조작 행위가 적발된다고 한다. 선거일 한 달 전부터 도심 곳곳은 선거운동 포스터로 가득하고 2주 전부터는 대대적인 선전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관직의 선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후보와 복잡한 선거과정이 짐작되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 자동화 과정이 처음으로 도입된 시기여서 그 혼잡함이 더해진 듯 보였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기계사용의 이해가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쿠야 Morito가 살고 있는 지역 nieves에서 관찰하였다. 오전 10시경에 도착한 투표장은 투표를 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오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 줄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3시간 째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크게 웃으며 이야기했다. 오랜 시간을 띄약별 아래에서 기다려야 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그곳의 더위보다 뜨거운 것이었다. 참여적인 정치의 형태, 자신의 투표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불편함이 초월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선거의 환경과 과정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다름 속에서 맥을 같이 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은 세계와 삶을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는 지역 주민들의 열정, 정치가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만인을 위한 행복에 기초한다는 강력한 믿음,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빚어낸 서투르지만 강렬한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이 원하는 세계가 반드시 오리라는 소망을 더하며 선거일은 저물어갔다.

Home stay in Valle Cruz (5월 11일 ~ 13일)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필리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언급하거나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기에. 이 때문에 필리핀 가정 Home-stay는 우리가 평범한 필리핀 생활의 일부를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매일 저녁 반찬으로 밥을 먹는지, 평범한 주말 오후에는 얼마나 낮잠을 자는지, 몇 장 없는 사진으로 그럴 듯하게 꾸며진 지난날의 앨범을 훑어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축적해 놓은 삶의 알맹이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렇게 따뜻한 일일 수 없었다.



우리 팀원들은 Valle Cruz 내의 각자 다른 가정으로 보내져 Home-stay를 하게 되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다섯 가정은 YMCA 스텝인 아떼 Mayet의 친인척들 위주로 선정되었다. Home-stay 가정이 선정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일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신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우리가 그들에게 혹시나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밥만 축내고 오는 일이면 어찌지? 하는 막막한 걱정들이었다. 하지만 Home-stay 가정에 도착하고 보니 우리를 안아 주며 환영한다고 말해주는 그들이 너무나 감사했다.



Gaby's Home-stay : 나는 Hannah의 집으로 Home-stay를 배정받았다. Hannah네 집은 아떼 Mayet의 여동생이자 Valle Cruz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신 아떼 Cony의 집이다. 카리스마 있는 아버님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14살 Lyle과 12살 Marian, 막내 딸 7살 Hannah까지 다섯 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는 집이다.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주시고, 잠자는데 불편하진 않을까 요강과 새 이불까지.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 앞에서 내가 무서울까 노래를 불러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나는 기뻐다. 저녁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밤늦도록 나와 Marian은 재잘재잘 이야기 꽃을 피웠다. 사춘기 소녀 Marian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한다며 그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곤 일기장에 'friend forever'이라는 글귀를 적어주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이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꿈꾸었다.



Nina's Home-stay : 나는 이미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이던 아떼 mayet의 집으로 Home-stay가 결정되었다. 워낙 친분이 있어서 걱정보다는 기대가 더 많이 되었다.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하루 밤을 보낸다는 생각에 들떠있었고, 나 역시도 그랬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했는데, 식구 중 한 명이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주었다. (여기는 밖에서 펌프질을 해야 욕실로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욕실에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앨범을 함께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늑한 방에서 아떼와 함께 잠을 청했다. 나 때문에 나머지 식구들은 밖에서 잠을 잤는데, 쿠야 Morito가 말해준 대로 필리핀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최고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도 잘 느껴져서 염치불구하고 다 받아버렸다.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교차했다. 아떼는 집이 좋지 않아서 창피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말이다. 초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티셔츠와 작은 선물을 준비해갔었는데, 다음날 아떼의 소중한 옷을 하나 선물해 주셨다. 한국에서 이 옷을 입을 때면 아떼가 떠오르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Matt's Home-stay : 이번 Home-stay로 인해 필리핀에서의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생겼다. 1박의 일정이었지만, 낮과 저녁시간에 마을의 행사와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 일과 때문에 Home-stay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게다가 내가 머물렀던 곳의 가족 분들은 거의 영어를 못 하시고, 나 또한 따갈로그에 능통하지 못했기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Home-stay 가정에서 받은 대우는 이러한 아쉬움을 메우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나로 인해 침실과 선풍기가 부족했지만, 가장 좋은 방과 선풍기를 손님인 내게 내주셨던 것과 손짓 발짓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다.



Oran's Home-stay : 필리핀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최고의 대접을 하려 노력한다. 음식 대접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방을 단장하여 내어 준다. 내가 방문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일과 음료를 준비해주시고, 잠자리와 욕실용품도 준비해주셨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섰지만 이건 또한 필리핀 문화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뜻의 Salamat po를 연신 외쳤다. 홈스테이를 하기 며칠전 우리를 보살펴 주는 아떼 마야의 고모께서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홈스테이를 하게되었을 때는 그분의 장례기간 중이었고, 우리는 필리핀 장례문화를 관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처음 도착한 장례식장은 한국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였다. 주로 검은색으로 장식되는 한국과는 다르게 새하얀색의 관과 함께 흰색을 중심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또한, 흰

색 또는 검정색의 옷이 공식적인 복장이고, 붉은색 옷은 결례가 된다고 했다. 유가족이 조문객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조문객은 주변에 머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은 한국의 그것과 비슷했다. 특이할 점은 관일부가 유리로 되어있어 고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가장 상단 중심부에 십자가가 있어 조문온 사람들은 나직히 각자 기도를 하는 모습이였다.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였기에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기록을 남기고자, 아떼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만 담을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촬영하고자 노력했다.



Young's Home-stay : 내가 Home-stay를 지내게 된 가정은 나와 늘 가깝게 지내던 꼬맹이 Via의 집이었다. 워낙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라, 당연히 Via도 나의 방문을 반갑게 여겨주리라 생각했는데, 처음 만난 Via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자기 집이 초라하고 형편없어 내게 보여주기 싫다고 중얼거렸다. 미안했다. 누군가에게 나의 성의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면목이 없었다. 나의 방문이 그들에게는 불편과 수치가 될 수 있음을 나는 사과했다. 네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꼭 너의 집에 가지 않아도 좋다고 Via에게 말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Via는 내 손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며 그래도 아떼 Young이 좋은 건 좋은 거라고 했다. 그래, 좋은 건 좋은 거다. 나는 그들과 함께 뜨거운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좋은 이야기

를 나누고 물을 나누어 마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필리핀 TV 프로그램을 보며 신나게 웃으며 잠이 들었다. 나는 늘 이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 여기 오길 잘했다. 이 꼬맹이와 그 가족들의 따뜻한 앞에 나는 멍청한 지식들을 버리고 그 자리에 마음으로 얻은 무언가를 채워나갔다.

Work Camp (5월 16일 ~ 25일)

5월의 주요 일정이었던 Work Camp에 대한 기대는 처음 이곳 Cabanatuan에 도착했을 때부터 우리를 들뜨게 했다. 단기간이지만 익숙하던 모든 편리함과 멀어져, 보다 우리 세계의 가장자리로 떠나가는 것. 그 떠남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단조롭지만 풍요로운 삶의 지혜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더구나 우리가 이번 Work Camp를 진행하게 된 곳은 Palayan시에 있는 Aeta 커뮤니티로, 필리핀 지역 내에서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마을이었다. 새로운 문화를 조우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 work camp가 더욱 기다려졌다.

Work Camp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약 열흘 동안 이루어졌다. 이전의 work camp는 보통 2주가 넘도록 진행되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필리핀 선거였다. 우리가 work camp 기간 동안 지내게 될 곳은 지역 내의 초등학교인데 선거 기간 동안은 그 장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이 조정되었다. (work camp가 끝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것이 엄청난 행운임을 깨닫게 되었다)



Welcome to the Aeta community !

이른 5월의 아침, 우리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넘치는 개인 짐들을 한쪽 어깨에 매고 온갖 살림 기구들을 차에 실으며 우리는 떠남의 설렘을 만끽하였다. 우리가 향하는 Aeta 커뮤니티는 필리핀 소수 민족 중 하나인 Aetas가 모여 사는 정착촌이다.

Aeta족은 가장 먼저 필리핀으로 이주해 정착한 원주민으로 처음에는 저지대에서 생활했으나 다른 인종들이 들어옴에 따라 고지대와 산지로 쫓겨나 산 속에서 정착하며 생활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 피부에 체격과 키가 작고 머리털은 곱슬곱슬하다. Aeta 주민들은 숲에서 열매 등을 모으거나 짐승을 사냥해 생활하며 남자들의 경우 활과 화살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낚시도 잘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루손의 산 속에서 거주했지만 지난 1991년 피나투보 화산의 엄청난 폭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의 문화와 생활모습은 환경과 기술의 발달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족들의 수 또한 이들의 생활터전이자 유일한 소득원인 삼림이 황폐화 되기 시작하자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다.



역사적으로 Aeta 원주민들은 필리핀의 가장 오래된 주인이지만 지나긴 세월을 다른 필리핀 사람들과부터 외면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왔다. 필리핀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피부가 검으며 굽슬머리를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에는 약 14만500여명의 Aeta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필리핀 정부는 Aeta 원주민 지역들을 개발하면서 정착촌을 새로 만들어 주었으나 농경과 수렵으로 생활하던 이들이 정착촌에서 정착할 수 없게 되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work camp를 진행하는 마을 역시 Aetas가 머무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도 그들은 많은 차별의 시선을 받아가며 살아간다. 이곳 마을 사람들의 주요 수입원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인데 이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의 열매를 손으로 며칠 간 다듬어 둥글게 만든 후, 그것을 주재료로 여러 종류의 장신구를 만든다. 그러나 지속적인 판매를 해나갈 수 있는 고정된 판매처가 없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머무는 지역은 유명 관광지로 개발이 되어있지도 않고 풍경으로 유명세를 탄 곳도 아니어서 마을을 찾는 외부인들이 적기 때문에 더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필리핀 내에서도 Aeta 소수민족을 향한 차별의 시선이 크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이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YMCA는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work camp를 통해 많은 Aeta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도착한 마을은 아담하였다. Aeta 커뮤니티가 속한 바랑가이는 그리 작은 편이 아니었지만 Aeta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아담하고 포근한 규모였다. 워낙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Aeta 아이들은 우리가 도착한 첫 날부터 우리의 품으로 달려들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다. 구름도 하늘에 물들어 있는 듯 조용한, 반듯하게 지어진 작은 집에서 요란하게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의 구슬 부딪히듯 낭랑한 목소리만 피어 오르는 이 마을. 유난히 하늘이 파랗고 맑은 이 곳.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었다.

작은 초등학교 교실을 정리해 짐을 풀었다.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열흘 동안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물들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우물에서 길어와야 하는 것. 쿠야에게 들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하루 종일 우리가 사용할 물을 직접 길어올 생각을 하니 눈 앞이 캄캄했다. 먼저 우리는 사용할 물을 길어올 우물을 살펴보기 위해 걸었

다. 학교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우물을 먼저 가보니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몇몇 모여있었다. 물을 길러 온 사람들인 듯 보이는데 우물 펌프를 앞에 두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왜 그런가 싶어 여쭙어보니 우물 물이 말라 한번에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아 적당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사용해야 할 물은 어찌할 것이며, 나아가 온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물이 이렇게 말라버렸으니 그들의 매일 저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당장의 물 부족을 해결하는지 알아보았다. 우물과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 작은 샘이 하나 있는데 우물에 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 곳에서 물을 얻어 사용한다고 하셨다. 우리 역시 매일 새벽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생활하도록 결정하였다. 마을을 관통하는 작은 수도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짝 말라버린 우물 앞을 서성이다 샘으로 발길을 돌리는 마을 사람들. 필리핀에 도착한 후로 두 번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우리 마음도 바짝 마른다. 갑자기 뜨거운 태양이 미워만 진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샘으로 물을 길러 가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 새벽 그 길도 여전히 뜨겁다. 아침 7시만 되면 대기 위에서 더운 공기가 올라와 발 끝부터 우리를 데운다. 되도록 일찍 일어나 아침 일과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뜨거운 태양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어깨가 빠져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며 남자들은 camp 공동체를 위해 오늘 아침도 까만 등 위에 소중한 물을 엮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아쉽고 뜻 깊은 푸른 샘물. 물이끼가 잔

뜩 끼어 있고 샘 주위로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있지만 이 샘이 있어 오늘도 이 마을 사람들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동생 손을 잡고 샘물로 와 맨 몸으로 샤워를 하는 아이들 틈으로 우리도 간소하게 물을 담는다. 자연이 주는 최소한의 물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느끼게 한다. 매일 새벽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선물이 신선하고 물질의 부재와 결핍 속에서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느낀다. 오늘 아침도 힘냅시다!

Make friends with the campers !

처음 work camp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의 work camp의 프로그램과 참여자들에 관해 쿠야 Morito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다. 매년 20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work camp에 참여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략 20명 내외의 청년들이 이번 work camp에 참여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원래 참가하기로 되어있던 대학생들이 대부분 선거와 관련된 자원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 만이 이번 work camp에 참여하였다. 우리와 열흘 동안 함께 활동했던 camper는 3명이었고 다른 참여자들은 대략 두 번 정도 캠프를 방문하여 그날의 일정을 소화하고 가는 형식이었다. 생각보다 낮은 참여도와 적은 참여자수에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캠프의 생활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든든한 camper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었다. 큰 숫자와 많은 양에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함을,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같은 camper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3명의 필리핀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 주었다. 올해로 4년째 work camp에 참여하는 베테랑 Efren은 work camp에 처음 참여하는 우리에게 선배이자 친구로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물을 요령 있게 길어오는 법부터 나무를 쉽게 자르는 법 등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주었다. 또한 매년 work camp에 참여했기 때문에 Efren은 마을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과 우리가 대면할 경우 따갈로 그가 서툰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 소개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work camp 프로젝트를 홍보해주었다. 또한 그는 완벽한 기타리스트다. 매일 저녁 일과가 끝난 후 camper끼리 모이는 시간에 우리는 그의 기타 선율에 맞추어 춤을 추고 밤이 질도록 함께 노래를 부르곤 하였다. 지금도 work camp를 생각하면 Efren의 기타소리와 깊은 밤이 먼저 떠오른다.



다른 한 명의 camper는 Efren과 같은 지역 출신인 Ian이다.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엿 보이던 베이비페이스. 그렇다. 그는 낭랑 열일곱. 이제 갓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이지만 매우 의젓하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곤 했다. 열일곱 순수한 이 청소년(?)은 엄청나게 수줍음이 많은 친구다. 첫날 자기 소개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해 크게 웃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었다. 우스꽝스런 표정으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며 Rock에 한껏 심취해 Efren과의 기타 이중주를 즐기던 아이였다. (우리들 중 Nina를 흠모했던 이 청소년은

밤마다 잠 못 들고 Nina를 향한 기타 세레나데를 연주했다는 후문이다.) 마지막 친구 한 명은 늘 camper들의 의식주를 챙겨주던 Lence다. 사실 우리는 Lence와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Oran이 Valle Cruz에서 Home-stay를 했던 가정이 바로 Lence의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으로 work camp까지 우리와 함께 하게 된 Lence는 우리 캠프의 요리 담당이었다. 필리핀 요리가 서툰 우리를 위해 항상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까지도 도맡아 해주었다. Lence 역시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었다. 살아오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이 친구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들뜬 음성을 들으며 이곳에 오길 잘했다 한번 더 생각해본다.

캠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따갈로 그어가 서둘러 아이들과의 수업 시간에 곤란함을 겪을 때 수업 진행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고,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직접 캠프장을 방문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혈압을 측정해주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를 찾아 Aeta 커뮤니티를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함이 느껴진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를 지탱해 준 Camper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사히 work camp를 마칠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Our project in Aetas

Camper들을 만나고 처음 시작한 일은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활동인가.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 의문이었다. 먼저 도착한 camper들과 이야기한 끝에 우리는 환경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공통의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밤과 체육대회를 준비하였다. 캠프 참여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아침은 Camper 남자들이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동안 다른 팀원들은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더워지기 시작하는 8시 이전까지 환경 팀은 학교 주변을 정돈하고 교육 팀은 9시부터 진행되는 수업 준비를 한다. 육체적 강인함을 요하는 환경 팀은 이른 아침부터 강도 높은 노동으로 땀을 쏟는다.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니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사

실이 실감난다.



교육 : 교육 팀은 마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침마다 2시간 썩 수업을 진행한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는 이 수업은 Efren이 통역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따갈로그어가 서툰 우리들을 Efren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수업 진행에 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활발한 성격의 아이들은 가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듯 보였지만 우리의 품으로 달려들며 사랑한다고 크게 외치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저 함께 웃게 된다. 항상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수업의 개념보다는 놀이의 개념으로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활발한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체험위주의 수업과 바깥 놀이 수업을 병행하였다. 만화경과 비즈 공예를 통한 과학교실, 종이 접기와 학교 그리기 등의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특히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좋아했는데 한국의 전통 놀이와 필리핀 전통 놀이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는 아이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늘 무언가를 주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이들. 꽃을 꺾어 걸어주고 망고와 산тол이라는 나무 과일을 따다 주면서 오늘도 품에 한껏 아이들을 안아본다.



YMCA는 또한 aeta 커뮤니티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응급처치와 간단한 구급법을 강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병원이나 보건소가 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마을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온아띠는 이 강의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들으며 강의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움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환경 : 매일 아침 물을 길어오는 것에서부터 간단한 학교 주변의 청소까지. 환경에 관련된 업무는 특별한 그룹을 나누지 않고 모두가 함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Work camp의 본 의미인 work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실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업무는 남자 camper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힘든 업무를 감당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것이다. 우리의 환경 관련 프로젝트는 약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샘물 청소** :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을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의 샘물에서 얻는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맑은 샘물이 늘 그곳에 고여 마을 사람들과 우리의 수요를 충족해준다. 하지만 샘물 주변은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흔적 때문에 늘 더러운 상태였다. 우리는 이 샘물을 청소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사람들이 물을 길고 난 후 샘물을 찾았다. 여전히 우리 뒤를 졸졸 따르는 마을 꼬마들이 쓰레기를 줍는 우리를 이상하게 한 동안 쳐다본다. 고여있는 물 밖으로 썩어가는 쓰레기들을 손으로 주우며 악취와 싸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곁에 있던 아이들이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주워 우리에게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이 프로젝트를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친환경 쓰레기장 조성하기** : 가장 먼저 우리는 학교 뒤 편에 생물 분해성 쓰레기와 생물 비분해성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릴 수 있도록 커다란 구멍을 팠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을 분류하여 버리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고립성을 고려했을 때 이곳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일이다.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것이 일반화된 방식인데, 이를 보다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work camp에서 먼저 시범을 보인 것이다. 생물 분해성 쓰레기는 땅에 묻어 그것이 거름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함이다.



→ 페인트 작업 : 도착한 학교는 새로 페인트칠을 막 끝낸 듯한 산뜻한 분위기였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의미에서의 작업인 듯 보였다. 그러나 유독 두 개의 커다란 벽면만은 페인트 칠이 되지 않고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아마 재정과 시간 상의 문제인 듯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벽면을 새로 페인트를 칠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선생님께 동의를 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의 작업을 반겨주셨다. 처음 해보는 페인트 작업이 익숙하지 않아 손과 옷에도 함께 그림을 그려가며 작업을 했지만 camper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즐거웠다.



→ 선거 포스터 제거하기 : 5월 10일은 필리핀의 선거일이었다. 선거는 이미 끝났지만 후보자 홍보를 위해 마을 곳곳에 붙여놓았던 수많은 선거 포스터는 그대로였다. 시간의 흐름과 정치의 혼란이 그대로 뒤섞여 마을을 촌스럽게 장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부터 쿠야 Morito와 선거 포스터를 제거하는 작업에 대해 토의했고 work camp 기간 동안 이를 실천하기로 이야기했다. 선거 포스터를 제거하는 작업에 대한 동의를 지역 청년 의회로부터 얻어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 낮에 더위와 싸워가며 포스터를 제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해주었기에 즐겁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 놀이기구 만들기 : Aeta 커뮤니티 내의 초등학교에 처음 도착해서 우리는 각자 학교를 관찰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했다. 학교 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마땅한 놀이터와 놀이기구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우리는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바깥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만들어보려고 입을 모았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페타이어를 이용해 그네를 만들자는 것이 그 의견. 쿠야가 구해준 타이어를 이용해 새로 페인트칠을 하고 나무에 매달아 간단한 타이어 그네를 만들었다. 아이들이 이 간소한 놀이기구에 뒹듯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빠른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는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지역 주민들과 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아이들을 모두 초대해 마지막 날 밤을 별빛 아래에서 함께 보내기로 하였다. 별이 빛나는 밤 프로젝트. 유난히 맑은 Aeta의 하늘은 밤에도 무수히 많은 별들로 빛난다. 밤이 되면 우리가 지내는 학교의 불빛 하나를 제외하곤 인공적인 빛이 하나도 없는 이곳. 그래서 매일 밤 학교의 불을 다 끄고 운동장으로 나와 다 함께 돛자리를 깔고 누워 별을 보곤 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별이 빛나는 밤. 이제 그 밤을 이곳의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먼저 우리는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필리핀 스프를 준비했다. 대형 솥이 동원되었고 엄청난 양의 음식이 준비되었다. 음식을 담당하는 Lence가 뜨거운 불 앞에서 많이 고생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위해 야외에 미니 영화관을 설치하였고 영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영화가 끝날 무렵에 맞추어 한복을 입고 전통 춤 공연을 준비하였다. 아이들은 우리의 멋진 춤을 보기 위해 하루 종일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것이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무대 위에 섰다. 별다른 조명 시설도 없고 무대도 작았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커다란 달빛의 자연 조명이 우리를 춤추게 했다. 부채춤이 끝나고 Nobody 댄스를 선보였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우리의 순서가 끝나고 앞을 다투어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들만의 느낌 있는 Nobody를 추었다. 아이들과 함께 Nobody를 추면서 새삼 따뜻한 밤 공기가 정겨웠다.



한바탕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과 간소하지만 뜨끈한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아갔다. 모닥불을 한 가운데 피워놓고 우리는 아이들과 필리핀 게임을 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타오르는 뜨거움 앞에서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우리의 고민들을 그 속에 녹여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가는 우리들.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과 보장도 없다.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방문객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보다 지역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을까. 당장 소금을 살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미안한 듯 목걸이를 내미는 할머니의 표정 앞에서 우리는

한참을 머뭇거리고 어색해했다. 우리의 일과 그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 매일 밤마다 고민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많은 돈과 풍요로운 물질적 재화가 이 지역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만든 관계가 이들의 삶 속에 오랫동안 남으리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과 환대를 가슴에 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배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캠프의 아침

캠프의 마지막 날 새벽. 동이 틈과 동시에 모든 Camper들이 기상했다. 지난 밤 있던 마을 축제로 모두 얹은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였지만 우리의 눈은 어느 때보다 밝고 선명했다. 우리는 서둘러 산에 오를 채비를 마치고 길을 떠났다. 캠프를 정리하는 날 아침, 그 간의 느낌들을 공유하며 새로운 아침을 맞기 위해 우리는 산에 오른다. 한국에 비하면 높은 산이 아니지만 열흘 동안 무서운 더위와 육체적 노동에 짓눌려 피곤함을 호소하던 우리들은 숨을 헐떡이며 산에 올랐다. 여자 camper들은 특히 풀에 스치는 곳들이 하얗게 부풀어 올라 간지러워 했고 이를 꼭 참으며 산을 올라야 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도착한 산의 정상은 우리의 가슴을 환히 열어젖히는 시원한 공기로 가득했다. 초록의 물결로 가득한 5월의 아침이 우리 눈 앞에 있다.



Camper들과 나란히 풀밭에 앉아 work camp에서 느낀 스스로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체력적인 피곤함과 더위에 지친 날들을 고백하고 서로의 친구가 되었음을 감사해하고 행복한 5월을 노래하며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어깨를 걸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푸른 5월은 아마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사진처럼 또렷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했던 고민과 이루고자 했던 꿈,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그 뜨거운 여름이 후두둑 떨어지는 나뭇잎의 생김으로 우리 가슴에 남을 것이다.



*'For next generation, for no longer hunger and war,
I want to contribute to the world on little my own way'*

From. Mortio

중간 평가 (5월 22일)

숨가쁘게 달려온 4월의 프로젝트를 마친 우리는 한국의 사무국으로부터 중간 평가단의 방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활동과 일상생활을 편집해 동영상을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렀던 3달 동안 배우고 느꼈던 점들을 정리한 PPT를 만들기로 하였다. 우리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필리핀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드렸는가에 대한 How to understand, 지역 커뮤니티 구성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담긴 How to listen, Valle Cruz의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해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의 한 부분이 담긴 How to share.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계획들이 담긴 How to dream이 그것이다.



십여 일의 기간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우리는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는데 매진했다. 또한 우리가 활동한 현장 소개를 위하여 현지 코디네이터인 쿠야 Morito 역시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했다.

이윽고, 평가 당일이 되었고 평가단이 마닐라를 출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첫 번째 현장인 Valle Cruz에서 Community Day 행사를 준비하였다. Summer School에 참가했던 아이들과 부모님, 지역 주민들과 우리가 Summer School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지역 청년의회 역시 우리를 찾아주었다. 평가단이 도착하고 우리는 약간의 부담감과 긴장감 속에서 행사를 시작하였다. Opening 기도로 시작된 행사는 우리가 Valle Cruz에서 진행한 Summer School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아이들의 작품들을 한 쪽 벽면에 전시하고 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이

후 아이들은 Summer School 동안 배웠던 태권도 시범도 보였는데 2주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것을 잊지 않고 멋지게 시범을 보여 우리를 감동시켰다. 이어서 방문단을 위한 작은 행사로 준비한 Nobody 댄스를 선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준비한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은 한 동작 한 동작 틀리지 않도록 긴장하면서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Valle Cruz에서의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평가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을 즐겁게 발표하였다. 그 후, 우리의 두 번째 활동 현장인 Aetas Community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중간 평가 준비 때문에 하루 먼저 캠프장을 내려왔는데 하루 못 보았다고 아이들은 우리를 정말 반가워했다. 움직이는 차에 붙어서 인사를 건네는 탓에, 인사보다 먼저 조심하라며 소리를 쳐야 할 정도였다. 아이들과 반가움을 나누며 한편으로 우리는 중간 평가단을 위한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다른 Camper들의 도움으로 현장은 이미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었다. 하루 먼저 캠프장을 내려왔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을 동료 Camper들을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먼저 우리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현지어로 번역된 동요를 같이 부르

면서 교실 안의 분위기는 달게 무르익었다. 평가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나고 우리는 스포츠 축제란 이름 아래 Aetas 부족의 전통 무기인 활과 불어서 쏘는 화살 경연대회를 열었다. 지역 주민들과 라온아띠가 직접 참여한 이 대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청년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며 한바탕 웃기도 하고, 어르신들의 칼 같은 활 솜씨를 보며 한껏 놀라기도 하였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가진 저녁 만찬에서 우리는 중간 평가단으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송실장님과 윤장현 이사장님, 홍공표 부장님과 진광표 과장님 모두 우리를 뜨겁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활동을 응원해주셨다. 배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 매사에 열심히 생활할 것,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셨다. 이와 같은 격려와 응원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

Work camp와 중간 평가기간이 겹쳐서 생기는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었다. 먼저, 현지 스텝과 라온아띠 모두 work camp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특히 이곳 YMCA는 스텝이 3명뿐이고 갑작스레 생긴 많은 일들로 인하여 현지 스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쿠야 Morito는 캠프 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많았다. 때문에 캠프를 총괄하는 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이 제때에 진행되지 못하였고, 우리 역시 중간 평가를 대비하느라 캠프에 다소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평가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활동을 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서 출국하던 날부터 현재의 프로그램까지 우리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되돌아 보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일, 가고자 했던 길은 무엇이었으며, 지금 그에 맞게 우리는 다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5월의 밤하늘을 빼곡히 채우던 많은 젊음의 고민들이 중간 평가를 준비하며 그 모양 그대로 우리 앞에 풀어졌다. 우리는 이 고민들이 우리를 더욱 질고 푸르게 하리라고 믿는다. 이 밤의 공기와 그 떨림이 우리를 더욱 고민하게 하고 고뇌하게 하리라. 허나 이 고민들을 우리는 즐겁게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더욱 치열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이다.



Tree planting (5월 21일)



퍼레이드 참여 (5월 21일)



물놀이 야호! (5월 29일)



개인 중간 평가



어느덧 필리핀에서 주어진 5개월의 시간 중 3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3개월 동안 정신 없이 달려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아서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의 일에 대한 느낌을 간단히 몇 글자로 적어내고자 한다. 처음 한 달여의 시간 동안은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와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적응을 해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많은 것이 낯설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이 보내는 시간은 마치 죄를 짓는 느낌 같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지루하던 적응기간이 있었기에 이후 시간 동안 좀 더 편하게 이 곳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 시간 동안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통보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코디네이터와 조정을 하고 주어진 범위에서 우리들이 기획과 구성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었었다. 아마 그러한 자율성이 있었기에 우리들이 좀 더 애착을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했기에 우리들이 이 곳 현지인들과 교감을 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지나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들과 우리들은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남은 두 달여의 시간은 두 가지 일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처음의 그 열정을 잊지말고 되돌아가는 순간까지 불태울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조금씩 우리들의 그림자를 지우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추억을 새겨놓는 것이라 생각한다. 훗날 이 순간들을 돌아봤을 때, 아쉬움도 후회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곳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만 남기도록 끝까지 노력해야겠다.



지난 3개월간 너무도 많이 일이 있었고, 그 많은 일들이 모두 소중하기에 어떤 이야기부터 써 내려가야 할지 막막하다. 이제 3달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아픈 곳 없이 너무도 건강하다. 누군가와 3달 동안 24시간 내내 함께 생활해 본적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형제, 자매가 없는 나로서는 처음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다. 또한 분명히 힘든 점도 있다. 큼직한 프로젝트 중 2개를 끝낸 시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도 잘 모르지만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차이를 인정하기, 조금씩 양보하기, 노력하기, 한번 더 생각하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기. 나는 필리핀에 와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주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팀원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나도 모르고 있는 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배우고 있다. 송실장님께서 중간평가 때 방문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unpack을 했으니 이제 다시 pack을 해야 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꿈에 우린 진짜 짐을 싣고, 제대로 짐을 싣는지 확인 받았다.) 알고 있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아직은 떠날 생각과 더불어 이 사람들과 헤어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늘 되새기려 노력하지만 자꾸 잊게 되는 한가지, ‘라온아띠’ 3기에 합격했던 순간이다. 뜨거운 열정만큼 뜨거운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라온아띠’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라온아띠’가 되었습니다. 라온아띠 3기에 합격했던 감동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고 최선을

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국내 훈련 자료집에 실린 글이다. 다시금 읽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림을 숨길 수가 없다. 2기 선배가 한 말 중 3월 3일의 마음을 8월 3일까 이어가라고 했다. 나는 힘들 때 마다 내가 쓴 글을 얼굴을 붉히며 읽어보곤 한다. 이미 피부색은 필리피나가 되어버렸고, 필리핀 음식에 푹 빠져버린 지금처럼 남은 기간도 필리핀에서 잘 살다 가고 싶다.



Gaby 박해린

아침마다 나는 방안으로 들어오는 새하얀 필리핀의 햇빛에 잠에서 깬다. 이 곳에 온 지도 벌써 3개월. 나는 가끔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기분이 든다. 필리핀에 가기 전 나는 필리핀에 가 있는 꿈을 자주 꾸었다. 현지 사람들과 정답게 인사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꿈이었다. 그렇게도 꿈꾸었던 필리핀이었지만, 막상 3월에 이 곳에 도착했을 때 내가 맞닥뜨린 상황은 나의 상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역시 친절했고, 한국의 여름과는 전혀 다른 뜨거운 기후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과는 별개로 3월에 날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다소 느슨한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3월에 나는 잘못 도착한 수화물처럼 마음을 못 붙이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의 생활에 임해야 할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천천히 흘려 보냈다.

마침내 4월이 되고 Valle Cruz에서 Summer School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는 지역사람들과 직접 만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좋았다. 매일 수업을 준비하는 일과는 힘들고 고되긴 했어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수업시간이 날마다 기다려졌고, 무엇보다도 행복했다.

5월 Work Camp는 최근에 마쳤는데, 요즘도 나는 일상에서 Work Camp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즐거운 이야기들과, 아이들의 미소가 갑자기 떠올라 웃음짓곤 한다. Aetas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매일 아침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길가에서 껌어온

꽃을 한아름 안겨주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느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즐거웠던 만큼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어느덧 우리가 필리핀에서 머무는 시간의 중간 지점에 와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약해져서 낮 시간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휴식의 시간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곳으로 떠나오기 전부터 각오했던 부분이지만 기후의 차이는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을 것 같다.

팀원들끼리의 의사소통 역시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크게 많이 깨달으며 배운 것 중의 하나이다. 사실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그 것도 풍습과 기후가 다른 외국에서라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힘들 때 마음을 달래며 함께 일으며 세우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지쳐갈 때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배웠다.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먼 곳에서도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지켜주는 필리핀 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배웠다.

지난 3개월은 나에게 새로운 곳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곳에 환한 웃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 곳에 왔지만 나는 이 곳이 나에게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받은 사랑만큼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열심히 나누어 주고 떠나고 싶다.

나의 달콤한 열대과일 맛 같은 필리핀 꿈은 이제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나의 남은 목표는 꿈에서 깨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덜 남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Oran 권오란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순간, 무언가를 이루고 가겠다는 거창한 꿈은 버렸다. '그저 잘살다 가자, 필리핀 사람이 되어 잘살다 가자'를 주문처럼 외며 지냈다. 그렇게 3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지났다. 마냥 즐겁게만 있으려고 온 것은 절대 아니건만, 점점 고민만 눈덩이처럼 커져간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 서머캠프 중에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속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워크캠프 중에는 Aeta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을 주고 가는가 혹시 되려 피해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 아이들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을 볼 때 마다 행복하지만, 그 행복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고민들과 마주한다.

돈 안받고 일한다고 모두가 봉사활동, 자원활동이라 이름 붙일 수는 없을 것인데, 심지어 모든 활동경비마저 지원받고 있는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여전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미처 보고서에 다 담지 못한 수많은 만남들,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귀중한 경험을 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아시아적 감수성'이라는 말. 가슴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있다. 수 없는 고민 속에서도 잠시 길을 잃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 아시안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며 후회 없이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Young 이영림

오월 별에 무르익은 나뭇잎들이 짙게 물들고 수많은 별이 빛나던 오월의 밤. 답 없는 질문과 꿈틀거리는 고민의 흔적들이 까만 밤 속으로 빨려가 또 하나의 별이 되던 그 푸른 밤. 떨어지는 별똥별과 반딧불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이여. 덧없는 번뇌와 수 없는 자기 반성이 녹아나는 치열한 밤이여.

행복할수록 고민이 많아진다. 나는 이곳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온전히 기쁘지만 그에 비례하여 나를 채우는 고민들도 늘어간다. 짧다면 짧은 시간을 머물다 떠나게 될 우리.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과 보장도 없다. 그 기간 동안 나는 과연 이곳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방문객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보다 지역 사람들과 끈끈하게 관계 맺을 수 있을까. 당장 소금을 살 돈이 없다며 우리에게 미안한 듯 목걸이를 내미는 할머니의 표정 앞에서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고 어색해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실천과 그 행동의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 매일 밤마다 고민했다. 하지만 안다. 중국에는 많은 돈과 풍요로운 물질적 재화가 지역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그리고 이곳에서 만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들과 내 삶 속에 오랫동안 남으리라는 사실을.

때때로 매일의 하루는 이곳에 존재함에 대한 사실감을 잃게 한다. 흘러버린 시간 속으로 우리는 불현듯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미 떠나려갔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후회와 회한, 고민과 배회 속에서 또 하루를 산다. 얇은 시간의 묶음 앞에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책임감과 마음에 담은 확고한 꿈들에 대한 의심 없이 앞으로 나아가리라 스스로에게 약속한다.